

석일본기(釋日本紀)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聲點)연구*

박 미 현**

mihyun0325@gmail.com

〈 目 次 〉

- | | |
|----------------------|--------------------|
| 1. 서론 | 4. 일본오음과 일본한음과의 대응 |
| 2. 석일본기 한국고유명사의 성점개요 | 5. 고사본과의 비교 |
| 3. 중국 중고음과의 대응 | 6. 결론 |

Key word : 석일본기(SYAKUNIHONGI), 한국계 고유명사(proper nom of korean origin), 성점(torn marks)

1. 서론

본 논문은 지금까지 조사되지 않은 『석일본기(釋日本紀)』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聲點, 약센트 부호)을 조사하여 학계에 제시하고 한국계 고유명사의 한자음 약센트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고찰한 것이다.

『석일본기』는 우라베 가네카타(卜部兼方)가 부친인 가네후미(兼文)의 일본서기 강의록과 헤이안 시대 주석서를 참고로 13세기에 완성한 주석서이다. 28권과 목록1권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서기 강연의 완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서기는 순수한문체로 기술되어 720년에 편찬된 이후 이듬해부터 조정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1394)

**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원, 일본어사

에서 당시의 박사(博士)나 상복(尙復)이 강의하였다. 이를 ‘서기강연(書紀講筵)’이라 하는데 강연은 공식적으로 985년까지 265년간 7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강연은 한문으로 쓰인 본문을 일본어로 복원하고 그것을 소리 내어 읽는 강의 형식으로, 교수자(教授者)인 박사나 상복들의 음독은 성조(聲調)를 포함하여 ‘사설(師說)’로 전해졌다. 이 사설은 쉽게 고치지 않는 전통으로 이어졌으며 본 연구의 자료인 『석일본기』는 일본서기 강연의 완성체로 평가받고 있다.

석일본기를 이용한 한국계 고유명사의 한자음 연구는 윤행순(1996,1998)의 연구¹⁾를 통해 일본 오음(吳音) 이전의 고음(古音)을 반영한 예가 많음이 밝혀져,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석일본기가 일본서기 연구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 비하면 석일본기를 이용한 한국계 고유명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계 고유명사에는 성점도 가점 되어 있는데 이 성점 또한 오음(吳音) 이전의 고음(古音)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성점 조사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을 이용한 악센트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성점 또한 고음을 반영하였는지가 밝혀진다면 고대한국어 한자음 성점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고음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고사본과 어떤 차이가 보이며 자료로 이용할 때의 유의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조사를 위한 영인본 텍스트는 『尊經閣善本影印集成 釈日本紀』(2004, 八木書店)을 이용하였고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석일본기(釋日本紀)』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사를 추출하고 성점을 분류하였다. 한국계 고유명사의 판별은 三品彰英(1962,2002),²⁾ 류민화(2003)³⁾에 따랐다. 석일본기의 한국계 고유명사를 인명, 지명, 관직명 등으로 분류하고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 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성점과 소재 및 각 고유명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석일본기 한국계 고유명사 한자음 성점 자료’로

-
- 1) 尹幸燦(1996) 『日本書紀諸寫本に存する訓法の研究』中央大学大学院博士學位論文 pp.296-321.
(1998) 『釈日本紀에 나타나는 古代韓國系 固有名詞의 漢字音에 대하여』 『일본어학연구』 1, 한국일본어학회 pp.125-139
 - 2) 三品彰英(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 吉川弘文館 pp.1-271
(200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下 天山舍 pp.1-299
 - 3) 柳玟和(2003) 『日本書紀朝鮮固有名表記字の研究』和泉書院 pp.221-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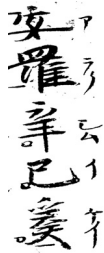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일본기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을 조사하여 일부를 권말 <자료1>에 제시 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중고음 성조의 대응관계를 조사하고 검토하였다. 중국 중고음의 대응 자료로는 郭錫良(편저)의 『漢子古音手冊』(增訂本)를 이용하여 그 결과의 일부를 <자료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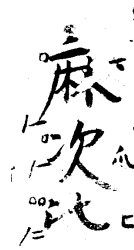
또한 일본의 오음(吳音), 한음(漢音)자료와 비교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본오음 자료로는 『觀智院本類聚名義抄 和音分韻表』,⁴⁾ 『九條本法華經音』⁵⁾을, 한음 자료로는 『長承本蒙求分韻表』,⁶⁾ 『新漢音分紐分韻表』⁷⁾를 이용하였다.

2. 석일본기의 한국 고유명사의 성점 개요

『석일본기』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사는 권16권의 비훈(秘訓)에 보이며, 성점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安羅辛巳奚(18권-17정)



<그림2> 麻次比(18권-18정)

성점은 한자의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의미한다. 악센트는 평성은 저평조(L), 상성은 고평조(H), 거성은 상승조(R), 입성

4) 沼本克明(1995) 築島裕(編) 『日本漢字音史論輯』 汲古書院 pp.123-186

5) 沼本克明(1997) 『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 汲古書院 pp.216-227

6) 沼本克明(1995) 築島裕(編) 『日本漢字音史論輯』 汲古書院 pp.187-243

7) 沼本克明(1997) 『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 汲古書院 pp.411-457

은 저평조(L)이다.

석일본기의 가점 형태는 선점(線点)과 권점(圈点)의 두 종류이며, 선점은 <그림1>의 『安羅』와 같으며, 권점은 <그림1>의 『辛巳奚』와 같다. <그림1>安羅辛巳奚의 성점은 上平平平이고 악센트는 HLLLL이다. 선점과 권점이 혼재된 예도 보이는데 <그림2>의 『麻次比』와 같다. 이 경우 평성 선점의 왼쪽에 정정 표식인 사선이 보이고 상성 권점이 가점되어 있다. <그림2>의 麻次比는 上上上에서 平平平으로 수정되었고, 악센트는 HHH에서 LLL로 수정됨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석일본기의 정정 선은 권점에 9개, 선점에 4개로 총 13개가 보이는데 수정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두 수정 후에는 선점으로 가점되었다.

성점이 가점된 고유명사는 인명이 437개, 지명이 131개, 관직명이 15개이다. 이를 성점별로 보면 다음 <표1>과 같다.⁸⁾ 한자 종류 수는 () 안에 표시 하였다.

<표1>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별 분포(()는 한자 종류)

	평성	상성	거성	입성	계
권점	757(300)	226(86)	228(80)	240(88)	1451(556)
선점	435(138)	82(48)	9(7)	1(1)	527(195)

<표1>에서 보듯이 권점은 총 1451점, 선점은 총 527점으로 권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권점과 선점 모두 평성이 가장 많으며 권점은 상성과 거성의 비율이 15%와 14%로 대등한 반면, 선점은 상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거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성점이 가점된 고유명사의 한자 종류는 511개이다. 단일 한자에 여러 성점이 가점된 복수 성점도 보이지만, 권점은 단수 성점이 314개, 복수성점이 45개이고, 선점은 단수 성점이 55개, 복수 성점이 5개로 단수 성점이 주를 이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를 이루는 권점의 단수 성점을 대상으로 석일본기의 한국계 고유명사 성점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8) 복수의 성점도 포함 했으며 본문의 <그림1>과 같이 수정 선이 있는 경우는 수정 후의 성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중국 중고음 성조와의 대응관계

본 장에서는 성점이 가점된 한자와 중국 중고음 성조의 대응을 살펴 보기 위해 석일본기의 다수를 점하는 권점 단수성점을 대상으로 중국 중고음의 성조와 대응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는 권말 <자료2>에 일부를 제시하였고 대응 결과는 다음 <표2>과 같다. 중고음의 평성, 상성, 거성, 입성과 구분하기 위해 본자료의 권점 성점은 A, B, C, D로 표기한다.

<표2> 단수 권점의 중국 중고음 대응 결과

석일본기 중고음	A	B	C	D	계
평성	92(73%)	13(10%)	18(14%)	2(2%)	125(43%)
상성	25(60%)	8(20%)	8(20%)	0(0%)	41(14%)
거성	37(74%)	2(4%)	11(22%)	0(0%)	50(17%)
입성	4(4%)	2(2%)	0(0%)	68(97%)	74(25%)
계	158(54%)	25(8%)	37(12%)	70(24%)	290

중고음 성조와의 구체적인 대응 예는 다음과 같다.

평성 ↔ A : 嘉, 芻, 甘, 監, 邯, 强, 開, 乾, 健, 姑, 崑, 科, 掛, 翹, 群, 勤, 斤, 堂, 敦, 郎, 嶮, 隆, 林, 琳, 明, 潘, 封, 賁, 三, 相, 祥, 霜, 生, 仙, 宣, 成, 雖, 需, 淳, 升, 承, 臣, 身, 楊, 余, 如, 延, 虞, 元, 原, 威, 儒, 夷, 仁, 慈, 章, 俊, 頂, 周, 池, 珍, 辰, 姬, 微, 嗟, 澹, 參, 昌, 滄, 清, 聰, 推, 龜, 佳, 春, 忠, 冲, 侵, 吞, 豐, 風, 皮, 韓, 函, 賢, 紅, 花, 桓, 輝, 休, 欽, 興(92자)

평성 ↔ B : 官, 奇, 經, 慕, 慕, 盤, 方, 菩, 禪, 敵, 提, 初, 欣(13자)

평성 ↔ C : 杆, 堪, 昆, 珉, 光, 今, 金, 曇, 陵, 西, 僧, 牛, 恩, 鷹, 將, 前, 丁, 耽(18자)

평성 ↔ D : 刳, 烏(2자)

상성 ↔ A : 廣, 卯, 己, 姐, 主, 定, 考, 起, 魯, 買, 昴, 美, 寶, 舍, 散, 水, 遠, 有, 稔, 典, 取, 齒, 項, 解, 好(25자)

상성 ↔ B : 野, 尹, 保, 氏, 壤, 五, 井, 左(8자)

상성 ↔ C : 掠, 柳, 拔, 洗, 紹, 旱, 峴, 後(8자)

거성 ↔ A : 固, 賀, 段, 買, 敬, 季, 灌, 禁, 對, 帶, 臺, 妙, 問, 半, 分, 鼻, 使, 四, 尚, 細, 用, 位, 義, 二, 帝, 第, 咒, 俊, 衆, 進, 贊, 判, 被, 護, 孝, 訓, 勳(37자)

거성 ↔ B : 抹,補(2자)

거성 ↔ C : 既,命,背,聖,市,宴,羿,肖,太,漢,欠(11자)

입성 ↔ A : 鹵,即,栢,則(4자)

입성 ↔ B : 葛,域(2자)

입성 ↔ D : 覺,角,甲,乞,谷,國,及,汲,級,吉,達,答,宅,督,得,洛,臘,列,喙,勒,木,勿,物,博,朴,發,白,伯,伐,福,北,弗,薩,昔,碩,釋,雪,速,率,宿,述,習,寔,室,實,押,億,闕,葉,屋,益,一,壹,灼,嫡,積,適,切,卒,竹,集,戡,鐵,築,卓,乇,弼,莟(67자)

<표1>을 보면 한국계 고유명사에 사용된 중고음의 성조는 평성이 43%, 상성이 14%, 거성이 17%, 입성이 25%로 일반적인 한자의 비율이다. 중국 중고음의 성조는 평성이 상성과 거성의 합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석일본기에 사용된 한국계 고유명사의 한자비율도 이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석일본기의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 비율은 A점이 54%, B점이 8%, C점이 12%, D점이 23%로 A점이 과반을 차지한다.

즉 중국 중고음 평성, 상성, 거성은 석일본기에서 A점(평성)으로 가점되었고 이는 중고음의 고평조와 상승조가 석일본기에서는 저평조로 발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한국계 고유명사 성점의 평성화에 대해서는 권인한(2005), 박미현(2014,2015,2016)의 결과와 같다. 권인한(2005)은 고사본 중 가장 오래된 이와사키본(岩崎本)을, 박미현(2014,2015,2016)은 이와사키본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마에다본(前田本)과 도쇼료본(圖書寮), 우라베케 계통인 가네미기본(兼右本)을 조사하여 중고음의 상성과 거성이 고사본에서는 평성으로 가점되었음을 논하고 한국어 연구 자료로 이용 가능성⁹⁾을 제시하였다.

석일본기의 성점은 10세기~11세기 사본인 이와사키본, 11세기 사본인 마에다본, 12세기 사본인 도쇼료본과 같은 경향을 보이므로 석일본기가 비록 13세기 사본이고 강의록이지만 결론으로 전해지는 고사본의 양적 부족을 보완하는 자료로 이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9) 박미현(2014) 『前田本『日本書紀』한국 고유명의 声点에 대하여』 『일어일문학』 62 대한 일어일문학회 pp.67-81
 (2015) 『圖書寮本『日本書紀』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의 声点 연구』 『일어일문학』 66 대한일어일문학회 pp.1-16
 (2016) 『兼右本『일본서기』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聲點) 연구』 『일본어문학』 74 일본어문학회 pp.21-42

4. 일본 오음과 일본 한음과의 대응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은 일본인에 의해 가점된 자료임을 고려하면 일본어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오음과 일본 한음과의 대응과정이 필요한데 먼저 석일본기의 단수 권점과 일본오음과의 대응을 조사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단수 권점의 일본 오음 성조와 대응 결과-단수 권점

석일본기 일본오음	A	B	C	D	계
평성	62(75%)	4(4%)	8(9%)	2(2%)	76
거성	49(66%)	11(15%)	13(18%)	1(1%)	74
입성	1(3%)	0(0%)	1(3%)	31(94%)	33

석일본기와 대응하는 일본오음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평성 ↔ A : 賈,江,開,敬,稽,固,觀,廣,久,勤,禁,内,尼,段,帶,量,萬,妙,問,未,美,寶,部,比,鼻,使,四,舍,散,尚,細,施,身,用,有,義,二,印,自,藏,定,頂,帝,第,助,主,咒,衆,志,至,進,搃,推,取,侵,破,解,好,護,訓,休,欽(62자)

평성 ↔ B : 野,委,左,欣(4자)

평성 ↔ C : 曇,命,世,背,聖,耽,漢,後(8자)

평성 ↔ D : 若,切(2자)

거성 ↔ A : 甘,乾,過,灌,翹,群,能,堂,臺,林,賈,明,微,山,三,生,宣,成,水,須,淳,承,臣,辛,余,如,遠,威,爲,伊,夷,慈,章,長,典,周,酒,支,知,祇,珍,清,龕,陀,波,風,行,賢,桓(49자)

거성 ↔ B : 經,奇,方,保,菩,夫,禪,壤,巖,五,致(11자)

거성 ↔ C : 堪,光,今,既,金,令,陵,西,盛,言,宴,牛,將(13자)

거성 ↔ D : 蓋(1자)

입성 ↔ A : 卽(1자)

입성 ↔ C : 拔(1자)

입성 ↔ D : 覺,甲,谷,國,級,吉,達,答,宅,得,列,勒,白,百,福,弗,昔,釋,速,率,習,室,實,押,億,益,一,卒,竹,集,鐵(31자)

일본 오음에서는 상성의 비율이 극히 적는데 <표3>에서도 석일본기와 대응하는 일본 오음자료에서도 상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표3>에서 보듯이 일본 오음과의 일치도는 평성과 입성은 높는데 비해 거성은 일치도가 낮다. 즉 평성은 75%가 A점으로, 입성은 94%가 D점으로 가점되어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 그러나 일본 오음의 거성은 A점으로 가점된 것은 66%인데 비해 C점으로 가점된 것은 13%로 일치도가 낮다. 상승조인 거성을 저평조로 가점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마에다본¹⁰⁾과 도쇼료본¹¹⁾에서도 보이며 석일본기도 고사본과 같은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일본 한음 성조와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와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표4> 단수 권점의 일본 한음 성조와 대응 결과

석일본기 일본한음	A	B	C	D	계
평성	61(79.2%)	5(6.4%)	10(12.9%)	1(1.2%)	77
상성	23(65.7%)	8(22.8%)	3(8.5%)	1(2.8%)	35
거성	23(74.1%)	1(3.2%)	6(9.6%)	1(3.3%)	31
입성	1(2.9%)	1(2.9%)	0(0%)	32(94.1%)	34

평성 ↔ A : 嘉,强,江,開,稽,姑,灌,觀,能,尼,臺,敦,隆,林,明,毛,微,潘,封,分,山,三,祥,霜,仙,宣,成,須,淳,承,施,辛,楊,余,如,延,于,虞,原,儒,伊,仁,慈,章,藏,長,知,參,推,陀,吞,波,平,豐,韓,行,香,賢,桓,休,興(61자)

평성 ↔ B : 經,菩,嚴,移,初(5자)

평성 ↔ C : 金,陵,西,僧,言,牛,鷹,將,前,丁(10자)

평성 ↔ D : 烏(1자)

상성 ↔ A : 賈,廣,鬼,怒,買,寶,比,散,水,元,遠,有,義,稔,典,頂,主,酒,取,項,許,護,孝(23자)

상성 ↔ B : 錦,補,夫,氏,野,五,尹,左(18자)

상성 ↔ C : 堪,昆,柳,洛(4자)

10) 박미현(2014) 『前田本『日本書紀』한국 고유명의 聲點에 대하여』 『日語日文』 62 대한일어 일문학회 p.78

11) 박미현(2015) 『圖書寮本『日本書紀』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의 声点 연구』 『어어일문학회』 66 대한일어일문학회 p.61

거성 ↔ A : 季,固,帶,量,妙,間,四,舍,尚,素,用,二,印,自,定,帝,第,俊,志,進,便,被,好(23자)

거성 ↔ B : 致(1자)

거성 ↔ C : 既,盛,聖,太,漢,後(5자)

거성 ↔ D : 蓋(1자)

입성 ↔ A : 栢(1자)

입성 ↔ B : 葛(1자)

입성 ↔ D : 甲,谷,國,及,汲,級,吉,答,得,木,博,發,白,百,福,北,雪,速,率,宿,述,習,寔,寔,一,壹,積,適,卒,竹,築,卓(32자)

일본한음과의 대응을 보면 평성, 상성, 거성은 A로, 입성은 D로 대응되어 상성, 거성의 평성 경향을 알 수 있다. 즉 석일본기의 한국계 고유명사는 일본 오음과 일본한음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석일본기의 한국 고유명사 성점은 일본오음 및 일본한음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고사본과의 비교

석일본기와 이와사키본, 마에다본, 도쇼료본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사의 한자 성점을 비교하여 석일본기의 특징을 보고자 한다.

이와사키본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은 권인한(2005)을, 마에다본, 도쇼료본은 각각 박미현(2014), 박미현(2015)을 이용하였다.

먼저 이와사키본과 석일본기에서 공통으로 가점된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 일치도와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이와사키본과의 비교

완전 일치 : 柯,迦,渠,灌,觀,翹,鬼,岐,金,內,達,曇,喙,流,勒,梨,摩,味,福,部,弗,斯,善,世,洗,率,習,伊,慈,長,積,定,竹,之,遲,徵,聰,平,惠(39자, 51.3%)

부분 일치 : 奈,多,大,道,都,羅,武,彌,法,比,土,沙,素,須,首,阿,餘,王,雲,委,爾,子,弟,佐,智,知,叱,豐,慧,興(30자, 39.4%)

불일치 : 堪,軍,買,僧,自,周,欣(7자, 9.2%)

석일본기와 이와사키본의 일치도는 완전 일치가 51.3%, 부분 일치가 39.4%, 불일치가 9.2%이다. 완전일치와 부분일치를 합하면 90.7%로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마에다본과의 일치도와 구체적인 예이다.

2) 마에다본과의 비교

완전 일치 : 伽,甲,稽,官,貴,鬼,斤,既,金,怒,能,段,達,得,等,騰,流,里,舛,磨,木,伴,百,本,部,富,備,費,娑,斯,城,率,淳,辛,楊,余,王,于,委,恩,伊,己,雌,灼,將,姐,前,定,政,主,洲,竹,即,枳,池,遲,戢,且,參,吞,耽,巴,波,便,平,布,惠,和(68자, 48.5%)

부분 일치 : 加,干,蓋,高,久,君,軍,岐,己,那,奈,寧,奴,尼,多,德,刀,東,羅,禮,鹵,喙,婁,利,麻,莫,未,慕,母,牟,武,文,汶,彌,背,不,夫,比,師,沙,上,消,須,信,阿,安,爾,日,適,殿,佐,州,支,智,知,至,叱,次,肖,破,奚(61자, 43.5%)

불일치 : 昆,奇,列,伐,新,臣,失,尹,足,哆,太(11자, 7.8%)

마에다본과 석일본기의 일치도는 완전일치가 48.5%, 부분일치가 43.5%, 불일치가 7.8%로 완전일치도와 부분일치도를 합하면 일치도는 92%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도쇼료본과의 일치도는 다음과 같다.

3) 도쇼료본과의 비교

완전 일치 : 伽,加,柯,迦,甲,開,渠,稽,官,灌,觀,鬼,斤,既,金,內,女,寧,能,多,達,大,鳴,得,等,騰,羅,郎,呂,令,聆,流,隆,勒,陵,梨,里,舛,摩,磨,買,明,木,妙,武,味,伴,拔,白,福,部,富,北,弗,備,費,斯,舍,善,洗,率,淳,習,身,辛,我,若,巖,宴,王,于,威,恩,意,伊,己,子,慈,雌,灼,章,長,積,前,定,帝,主,周,洲,竹,衆,即,之,枳,池,知,遲,微,且,肖,摠,聰,吞,太,波,破,跛,平,布,豐,惠,和,興(113자, 61%)

부분 일치 : 干,蓋,高,久,君,貴,岐,己,那,奈,奴,尼,曇,德,刀,道,都,良,禮,鹵,喙,利,麻,莫,未,昧,慕,母,牟,文,汶,彌,背,法,不,夫,比,士,師,沙,世,素,首,信,阿,安,陽,餘,委,柔,爾,適,弟,佐,州,支,智,至,津,叱,次,奚,慧(63자, 34%)

불일치 : 昆,珉,軍,列,伐,新,自,足,欣(9자, 5%)

도쇼료본과의 일치도는 완전일치가 61%, 부분일치가 34%, 불일치가 5%로 완전일치와 부분일치를 합하면 일치도는 95%이다.

이와 같이 석일본기와 고사본과의 일치도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가점된 고유명사의 한자 성점은 일치도가 90%이상을 보여 상당히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일본기에 보이는 한국 고유명사의 성점은 고사본의 양적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되지 않은 석일본기의 한국계 고유명사 성점을 조사하여 특징을 고찰하여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자료로서 가능성을 논하였다. 특히 성점의 대다수를 점하는 권점을 대상으로 본 결과, 중국 중고음의 성조 대응에서 평행하지 않았다. 즉 중국 중고음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일본음의 간섭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오음, 일본한음과 대응을 살펴본 결과 일본오음의 거성, 일본한음의 상성과 거성은 석일본기에서 평성으로 가점되었다. 이점은 고사본에서 보이는 평성화와 같은 경향이였다.

고사본과 공통적으로 사용된 한자를 비교한 결과 이와사키본, 마에다본, 도쇼료본에서 모두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따라서 석일본기는 고사본의 양적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 權仁瀨(2005) 『岩崎本『日本書紀』の声点에 대한 一考察—韓國系固有名詞資料를 中心으로』 『大東文化研究』 5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318
- 박미현(2014) 『前田本『日本書紀』한국 고유명의 声点에 대하여』 『일어일문학』 62 대한 일어일문학회 pp.67-81
- _____(2015) 『圖書寮本『日本書紀』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의 声点 연구』 『일어일문학』 66 대한 일어일문학회 pp.1-16
- _____(2016) 『兼右本『일본서기』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聲點) 연구』 『일본

- 어문학』 74 일본어문학회 pp.21-42
- 尹幸彛(1998) 『釈日本紀에 나타나는 古代韓國系 固有名詞의 漢字音에 대하여』 『일본어학연구』 1 한국일본어학회 pp.125-139
- 鈴木豊(編)(2003) 『日本書紀人皇券諸本 聲點付語彙索引』 アクセント史資料研究会 pp.1-526
- _____ (2008) 『岩崎本『日本書紀』声点の認定をめぐる問題点』 『論集』Ⅳ アクセント史資料会 pp.95-110
- _____ (2010) 『日本紀講書とアクセント—『日本書紀』声点本の成立に関する考察—』 『論集』Ⅵ アクセント史研究会 pp.17-42
- 高山倫明(1981) 『原音声調から觀た日本書紀音仮名表記試論』 『語文研究』 51 九州大学国語国文学会 pp.13-20
- 築島裕(1978) 『岩崎本日本書紀 本文と索引』 財團法人日本古典文學會 p.477
- 沼本克明(1995) 『吳音・漢音分類表』 築島裕(編) 『日本漢字音史論輯』 汲古書院 pp.160-164
- _____ (1997) 『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 汲古書院 pp.216-227
- 三品彰英(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 吉川弘文館 pp.1-271
- _____ (200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下 天山舎 pp.1-299
- 尹幸彛(1996) 『日本書紀諸写本に存する訓法の研究』 中央大学大学院博士学位論文 pp.296-321
- 郭錫良(編)(2010) 『漢字古今手冊』(増訂本) 商務印書館 pp.1-537
- 柳玟和(2003) 『日本書紀朝鮮固有名表記字の研究』 和泉書院 pp.221-266

접 수 일: 2016년 12월 31일

심사완료: 2017년 01월 30일

게재결정: 2017년 02월 01일

[별첨자료]

『석일본기(釋日本紀)』에 보이는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자료(일부)

- 범례 -

1. 한국계 고유명사는 인명은 <자료1-인명>, 지명은 <자료2-지명>으로 각각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였다.
2. 석일본기의 권점(圈點)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하고, 한자 왼쪽 아랫점은 저평조, 왼쪽 윗점은 고평조, 오른쪽 윗점은 상승조, 오른쪽 아랫점은 입성이며, 한자 성조와 구분하기 위해 저평조를 A, 고평조를 B, 상승조를 C, 입성을 D, 평성경(平聲輕)을 E, 입성경(入聲輕)을 F라 표기하였다.
3. 석일본기의 선점(線點)은 알파벳 소문자로 표기하며 저평조를 a, 고평조를 b, 상승조를 c, 입성을 d로 표기하였다.
4. ‘王’‘君’‘將軍’‘城’ 등은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석일본기에 같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 분리하지 않고 함께 제시하였다.
5. 방훈과 성점이 없는 경우 *로 표기하였다.
6. 석일본기의 소재는 18권-3정-앞면은 18-03o로, 18권-24정-뒷면은 18-24u 표시한다.
7. 일본서기 본문과 표기가 다른 경우 ()로 일본서기 표기를 표기한다.

(자료1) 석일본기의 한국계 인명(일부)

ID	인명	방훈	성점	석일본기(권-정)
1	哥(奇)奴知	カヌチ	AAA	18-24u
2	加臘直岐甲背	カラフチキカフハイ	ADDADC	18-04u
3	迦摩多	カ*タ	aab	19-06u
4	加不至費直阿賢移那斯	カフチノアタヒアケンヤナシ	BBB**AABAA	18-03o
5	加須利君	カスリキシ	aaa*	17-12o
6	角福牟	カクフクム	DDA	20-30o
7	杆率禮塞敦	カンソツライソクトム	CDADA	18-10u
8	堪遲大舍	タンヂノオホクラ	CA**	19-14o
9	甲背昧奴	カフハイメイ・ノヘイト	DC**A	18-02u
10	蓋鹵王	カフロワウ	DBB	17-11u
				17-17o
11	敬須德那利	キヤウストクナリ	AADBB	22-03o
12	季德己麻次	キトクコマシ	ADAAA	18-13u
13	季德進奴	**シムヌ	**AA	18-13u
14	己能末多干岐	コノマツタ**	AADBCB	17-21o
15	古爾解	コニケ	AAA	17-15u
16	固德馬丁安	コトクマテイアム	ADACA	18-13u
17	固德馬次文	コトクマシモム	ADAAC	18-08u
18	固德丁有陀	コトクテイウタ	**CAA	18-13u
19	固德進文	コトクシムモム	**AB	18-09o
20	苦都	コツ	ab	18-14u
21	己本早岐	コホカムキ	aaCb	17-07u
22	己富利知伽	コフリチカ	aaaab	17-21o
23	古殿奚	コテンケイ	AAA	18-02o
24	岷嶮	コムロク	AA	19-22u

ID	인명	방훈	성점	석일본기(권·장)
25	昆支王	コムキワウ	CAB	17-14o
26	王+昆支王	コムキワウ	CAB	17-17o
27	過古	クワコ	Ab	17-07o
29	觀勒	クワムロク	AD	19-06u
29	觀常	クワムジャウ	*C	21-16o
30	久爾辛	クニシ(シム)	aaa	17-08u
31	久礼爾師知于奈師磨里	クレニシチテ/ウカムナシマリ	aaaa*aaaa	17-21u
32	久礼斯已母	クレシコモ	**aaa	17-22o
33	久禮志	クレシ	aaa	17-08u
34	久禮叱及伐干	クレシキフホツカム	aaaDDC	18-18o
35	久禮波	クレハ	aaa	17-08u
36	久氏	クテイ	aa	17-07o
37	久遲布礼	クチフレ	aaaa	17-21u
38	久取柔利	クシュトリ	AAAA	18-02o
39	貴干寶	クキカンホウ	AAA	21-06u
40	貴首王	キシユワウ	AAB	18-02u
41	貴信	クキシム	BA	17-13u
42	既殿至	キテムチ	cAa	17-07u
43	鬼室集斯	クキシツシフシ	ADDA	20-26o
44	鬼室集信	クキシツシフシム	ADDA	20-30o
45	今敦	コムトム	DDCA	18-09u
46	金羅金須	コムラコンシユ	CBCA	20-30o
47	級浪金道那	キフサムコムタウナ	DACCA	22-03u
48	級浪金薩葦	キフサンコンサツモ	DACDB	22-02u
49	級浪金消勿	キフサムコンセウモツ	DACAD	21-09u
50	級浪金仁述	キフサンコンニシユツ	DACAD	22-02u

〈자료1-2〉 석일본기의 한국계 지명 일부

ID	지명	방훈	성점	석일본기(관·정)
1	加羅	カラ	ab	17-07u
2	加羅	カラ	/B·A/A·B	18-02o
3	加羅國	カラノクニ	BA*	18-18o
4	加巴利濱	カハリノハマ	aaa*	20-23o
5	甘羅城	カムラノサシ/左ジャウ	ABB	17-08u
6	居會山	コソムレ	aa*	18-18u
7	乞滄國	コツサムノクニ	D**	18-18o
8	乞毛城	コツトクノサシ/キ	DD*	17-23o
9	高難城	カウナムサシ/左カウナムジャウ	A*B	17-08u
10	己汶之地	イモムノトコロ	BA	17-19u
11	古沙山	コサノムレ	aa*	17-07u
12	古嗟國	コサノクニ	AA*	18-18o
13	古跛	コベ	aa	17-21o
14	古奚津	コケヅ	baa	17-07u
15	谷那	コクナ	Da	17-08u
16	谷那鐵山	コクナテツノムレ	DaD*	17-07u
17	谷智	コクチ	DA	18-14u
18	久禮牟羅城	クレムラ	aaaa*	17-22u
19	久禮山	クレモレ	aa*	18-05u
20	久麻那利	コムナリ	aaba	17-13u
21	久斯牟羅	クシムラ	aaaa	17-21o
22	久知波多枳	クチハタキ	abaaa	17-22u
23	久陀牟羅	クタムラ	aaaa	18-14o
24	金官	コムクワン	C*	17-21u
25	己叱己利(城)	コシコリサシニ	aaab *	17-21u
26	南加羅	アリヒシノカラ	*ab	17-07u
27	南迦羅	アリヒシノカラ	*ab	19-06u
28	怒受利之山	ヌスリノムレ	aaa**	20-20o
29	能備己富里	ノヒコホリ	aaaba	17-22u
30	尼彌方	ニミハウ	AAB	18-10u

(자료2) 석일본기 한국계 고유명사의 성점과 중국 중고음 및 일본 한음·일본 오음 성조의 대응

한자	중고음	한음 (長承本蒙求/新漢音)	오음 (觀智院本名義抄/九條本法華經)	석일본기
伽	果開三平戈羣	*/키야平	*/카·가去	ab
加	假開二平麻見	*/*	*/카去	ABa(B·A)
可	果開一平哿溪	카上*	카平/카去	AB
哥	果開一平歌見	*/*	카/*	AB
嘉	假開二平麻見	카平/*	*/*	A
柯	果開一平歌見	*/*	*/*	a
歌	果開一平歌見	카平/*	去/카去	AB
賈	假開二去禡見	카上*	*/코平	A
迦	果開三平戈見	*/키야上	*/카去	a
哿	果開一平哿見	*/*	* *	A
覺	江中二入覺見	*/*	*/카ク入	D
角	江中二入覺見	카ク/*	*/*	D
干	山開一平寒見	*/*	*/칸去	AbCc
杆	山開一平寒見	*/**	*/*	C
葛	山開一入曷匣	카ツ入*	*/*	B
堪	咸中一平覃溪	上/*	去카ム/카ム去	C
甘	咸中一平談見	카ム平輕*	*/카ム去	A
監	咸中二平銜見	*/*	*/*	A
邯	咸開一平談匣	*/*	*/*	A
甲	咸中二入狎見	*/*	카フ入*	D
岡	宕開一平唐見	*/*	*/*	a
強	宕開三平陽羣 /宕開三上養羣	經反平/*	카ウ平/카우去	A
江	江中二平江見	카우平/*	平/가우平	Aa
蓋	泰見去/匣盍入	카이去/*	카이去/카이去	D
開	蟹開一平哈溪	카이平輕*	*/카이平	A
居	遇中三平魚見	*/*	*/*	ab

<Abstract>

Tone marks of the proper nouns of Korean origin in the SYAKUNIHONGI

This paper analyzed the tone marks of the proper nouns of Korean origin in the Syakunihongi which have not been studied. Specificall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otential as a tone-mark-related material of the proper nouns of Korean origin were discussed. The analysis about Kenten, which owns majority of the tone marks, revealed that it did not correspond with the tone marks of Middle Chinese sounds. That is, it did not reflect the Middle Chinese sounds directly.

Next,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terference of the Japanese sounds, the correspondence between tone marks in the material and Japanese Go-on and Kan-on was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Kyosyo of Japanese Go-on and Jyosyo and Kyosyo of Japanese Kan-on were marked with Hyosyo. This was closely related to the marking pattern with Hyosyo in the old manuscript. When we compared the Chinese characters which were used in the old manuscript with Iwasaki manuscript, Maeda manuscript, Toshioryo manuscript, it was revealed that they have high ratio of correspondence.

Accordingly, it is assumed that the Syakunihongi could be used as an academic material which supplements the shortage of old manuscript in terms of the quantity.